

2016 상반기호 | VOL.92

너와 내가 하나의 원으로 만나 조화로운  
두바퀴가 될 때 번길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 두바퀴



창원경륜공단



경고 : 지나친 구매행위는 자신과 가정에 해가 됩니다.



직절간소(直節干霄)는 사군자 중 대나무의 절개를 일컫는다.  
무명천에 붓으로 그린 수묵화는 말 그대로 곧은 절개가 넘쳐나는 듯 굳더더기 없이 간결하다.



해봉 김수진

마산 출신으로 개인전과 그룹전 등 크고 작은 30여회의 작품전에 참가.  
현재 마산 창동예술촌 입주작가로 해봉화실 운영 중.





● 표지이야기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 아래 만들어진 모형자전거에 불이 밝혀졌다.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 벚꽃과 자전거가 조화를 이뤄 봄 향기 물씬 풍기는 밤 정취를 자아낸다. \_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에서

- 사진 김규태 / 감사홍보담당관실

# 두바퀴

2016 상반기 | VOL. 92

## CONTENTS

04	경륜칼럼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06	공영자전거	봄철 누비자 이렇게 이용하세요
07	자전거문화센터	2016년 무료 수강생모집
08	경륜이벤트	제4회 한일경륜전
10	한일경륜 스케치	
12	지금 남녘에선	벚꽃 바람에 스러지다
14	자전거 마니아	구마노고도 기행기 · 홍성민
16	두바퀴 인생	황인혁(21기)선수
18	가보고 싶은 우리 땅	창녕 남지
20	공익사업	한국야생화전시회
21	동호회이야기	스크린동호회 · 박성범
22	창원 돔 소식	행자부 재정균형집행우수기관 선정 등



#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 연간 100조원 불법 사행산업시장 눈덩이 성장
- 사감위, 규제 완화해서 합법산업 성장 도모할 시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출범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2007년 9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향등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직속 심의·의결기구로 발족한 후 10년째에 접어들었다.

당시는 ‘바다이야기’란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할 때여서 사감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았다. 그런 사회적 배경에 힘입어 사감위는 출범 때부터 철저

하게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향해왔다. 불법과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구분이나 차별화는 처음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불법과 합법을 다 같이 사행산업이란 한 바구니에 담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부의 통제와 단속을 받는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도토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합법 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논쟁이 이른바 기관차효과(Locomotive Effective)와 풍선효과(Balloon Effect)였

다. 사감위원들은 합법적인 사행산업일지라도 매출과 규모가 확장되면 불법 산업도 덩달아 성장한다는 기관차효과를 주장했고, 시행자측은 합법시장을 규제하면 그 돈이 결국 불법시장으로 흐른다는 풍선효과를 대응논리로 내세웠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결국은 사감위 주장대로 매출총량 및 장외발매소 개설 등을 이중으로 규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사행산업 시행자측은 지나친 규제라며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감위는 10년째 요지부동 별다른 완화조치 없이 처음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10년째 요지부동... 처음 정책 그대로 유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최대 100조원으로 GDP(1,272조원)의 10%, 정부예산(326조원)의 30%에 이른다. 이같은 규모는 전체 지하경제 추정치 300조원의 1/3에 육박해 바로잡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돈을 합법시장으로 흡수한다면 편성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3~5세 누리과정 예산(2015년 3조9284억원)과 의무급식 예산(2조6239억원) 등 국민적 관심사를 모았던 국책사업에도 무리없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언론은 지적했다. 지방경륜의 경우 출범 당시부터 매출액의 2%를 지방교육세로 배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교육문제 해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범 10년차를 맞은 사감위는 이제 사행산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확고한 반석위에 올랐다. 그런 만큼 이제는 10년전 초기 정책을 한번쯤 체크하고 피드백 해봐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시행처의 주장처럼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면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 시대에 따라 상황은 바뀌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도박이 갈수록 난무하는 시기에 목표 달성을 위해 노선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다. 자고나면 달라지는 게 인터넷 세상이다. 대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견잡을 수 없는 게 지금의 사행산업 주변 환경이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융통성을 발휘해 현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창원시 공유자전거

# 누비자

가볍고 유용한 자전거, 재밌고 즐거운 유혹

## 주요연혁

- 08.10.22 누비자 개통(터미널 20, 자전거 430대)
- 10.01.01 창원경륜공단 누비자 수탁 운영
- 13.01.21 자체개발 통합관리운영시스템 특허 취득
- 14.06.11 자체개발 신 누비자 관제솔루션 저작권 등록
- 15.12.31 현재 터미널 255개소 자전거 4,130대 운영

## 2015년도 운영현황

- 회원가입 : 61,097명 (누적 409,868명)
- 1일 이용 : 219,045회 (누적 1,116,436회)
- 이용횟수 : 5,706,480회 (1일 평균 15,634회)
- 주행거리 : 7,842,222km (지구 195바퀴 정도)

## 누비자 이용안내

- 이용대상** : 만13세이상으로 자전거운전이 가능한 분
- 회원가입** : 누비자홈페이지, 누비자운영센터,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이용방법**
  - 회 원 : 회원가입 및 이용요금 결제후 사용가능한 교통카드(마이비,캐시비카드 등) 등록 후 자전거 이용
  - 1일회원 : 터미널 키오스크 1일 이용권 서비스를 휴대폰으로 결제 후 자전거 이용
- 누비자 정지시간** : 오전 1시~오전 4시까지

## 누비자 이용요금

### 회원

※ 1회 대여시간(90분) 초과 시 이용제한이 됩니다.

회원종류	가입비	결제방법
연회원(365일)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대폰결제, 가상계좌입금</li> <li>현금(누비자 운영센터)</li> </ul>
반기회원(180일)	18,000원	
월회원(30일)	4,000원	
주회원(7일)	2,000원	

※ 국가유공자 50% 할인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여 시청, 읍·면·동주민센터, 누비자운영센터 방문)

### 1일 회원 (결제후 24시간 이내 1일 이용권번호 재대여 가능)

1일 이용권	이용요금	결제방법
1회 대여시간 90분	1,000원	휴대폰 소액결제

## 누비자 이용수칙

- 대여후 90분내 반납(다시 대여 가능)해야 합니다.
- 반납시 "보관중" 파란색 램프를 "꼭" 확인하십시오.
- 반납할 보관대가 없을시 보관대 보조잠금열쇠나 인접 터미널 반납으로 분실 방지 조치 바랍니다.
- 누비자는 공공재산임으로 분실, 훼손, 방치시 변상은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비자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이용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시 반드시 고장유무를 확인하여 각종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누비자 연회원(3만원) 교환권 판매

- 구입문의 : 누비자운영센터 (239-1152, 1158)
- 사 용 처 : 홈페이지, 누비자운영센터, 동주민센터
- ※ 홈페이지(<http://www.nubija.com/>) 교환권 등록 메뉴 참조
- ※ 각종 단체행사 경품 또는 개인 선물용으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창원시민의 『복지』이자  
녹색교통수단인 누비자  
안전하고 소중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누비자 운영센터 1577-2114 (상담콜센터)  
<http://www.nubija.com>

창원시자전거문화센터

# 자전거 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

창원시자전거문화센터에서는 자전거타기활성화 및 문화조성을 위한 자전거 무료 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과정** | 생활반, 직장인반 (야간), 중급반
- **교육기간** | 2016년 3월 ~ 11월(8개월) ※8월 제외
- **교육대상** | 창원시민(만 65세 이하)
- **교육인원** | 각 과정별 30명 이내, 연중 선착순 접수(인터넷 · 방문 접수)
- **세부내용** | (공단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 정	대 상	장 소	일정 및 시간	교육내용
생활반	성산 / 의창구민	자전거문화센터 (창원경륜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5, 7, 10월 (4회)</li> <li>• 4주간 (16일, 월 ~ 목)</li> <li>• 오전 10 ~ 12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바로알기</li> <li>• 자전거타기</li> <li>• 누비자 교육</li> <li>• 시내주행 실습</li> </ul>
	진해구민	에너지환경 과학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해 2회 (5, 10월)</li> <li>• 마산 2회 (6, 11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바로알기</li> <li>• 자전거타기</li> <li>• 누비자 교육</li> <li>• 시내주행 실습</li> </ul>
	마산회원 / 합포구민	삼계근린공원 (내서운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주간 (12일, 월 · 수 · 금)</li> <li>• 오후 14 ~ 16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바로알기</li> <li>• 자전거타기</li> <li>• 누비자 교육</li> <li>• 시내주행 실습</li> </ul>
직장인반 (야간)	직장인, 학생 (초등3학년이상) ※ 부모님과 동행	자전거문화센터 (창원경륜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5, 6, 7, 9, 10월 (6회)</li> <li>• 2주간 (8일, 월 ~ 목)</li> <li>• 저녁 19 ~ 21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바로알기</li> <li>• 자전거타기</li> <li>• 누비자 교육</li> </ul>
중급반	주행가능자 / 교육수료자	자전거문화센터 (창원경륜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6, 9, 11월 (4회)</li> <li>• 2주간 (8일, 월 ~ 목)</li> <li>• 오전 10 ~ 12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TB 기초교육</li> <li>• 자전거 정비기초</li> <li>• 누비자 시내주행</li> <li>• MTB 시내주행</li> </ul>

- **문의처** | 창원경륜공단 교육문화파트 ☎ 239-1185 (강사 : 김지선)
- **홈페이지** | 창원경륜공단(<http://www.domerace.com>) 홈페이지 우측상단  
⇒ **자전거문화센터 클릭** ⇒ **자전거배움터(교육신청란)** 접수하세요.



# 한일경륜전 3연패 대업 달성

## – 제4회 한일경륜전, 이현구선수 우승

속명의 라이벌 한일간에 펼쳐진 한일경륜전에서 우리나라가 3연패의 대업을 달성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창원경륜장에서 열린 제4회 한일경륜전 결승에서 우리나라 이현구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제1회 일본 이토경륜장 대회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열린 2회와 3회 대회 김민철선수에 이어 또 다시 이현구선수가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이날 경주에서 우리나라는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이현구선수와 강진남선수 등을 내세워 일본 대표선수 요시다 토시히로, 마츠오카 타카히사, 콘도우 타츠노리선수 등을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현구선수는 이날 마지막 한바퀴를 앞두고 쫓히기전법으로 전력 질주, 일본선수를 따돌렸다. 2위와 3위 선수도 김주상선수와 강진남선수가 차지해 이번 한일경륜전은 우리나라의 잔치가 됐다.



우리나라는 이날 우승으로 제2회 광명대회, 제3회 일본 도쿄대회에 이어 제4회 창원대회까지 내리 3연패를 차지했다. 일본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3연패를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다했으나 아쉽게 또 다시 고배의 쓴잔을 마시고 말았다. 일본은 특히 이번 대회를 앞두고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대규모 임원진을 파견하는 등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에서 열리는 한일경륜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 한일경륜전은 내년 일본에서 제5회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 ◆ 이현구선수 인터뷰 ◆

### - 우승 소감은.

고향 창원에서 우승하게 돼 기쁘다. 출전 전에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되리라 생각했는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작년 그랑프리에서 우승하지 못해 팬들께 실망을 드렸는데 우승해 정말 기쁘다.

### - 일본선수 중 누가 가장 어려웠나.

아무래도 요시다 토시히로선수가 어려웠다. 일본에서도 상당히 실력이 높은 테크니션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아는데 컨디션 조절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

### - 이번 대회전에 일본선수와 대결한 경험은 있는가.

경륜에 와서 두 번째다. 지난번 광명대회에 이어 한국에서만 출전했는데 이번에 우승했다. 오늘은 젓기 등을 통한 자력 승부를 생각했는데 잘 맞아 떨어졌다.

### - 내년에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에 또 출전하고 싶나

기회가 된다면 또 출전하고 싶다.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당하게 도전하고 싶다.





# 사진으로 다시 보는



■ 김덕용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의 감사패전달



■ 출전선수 확정검사



■ 공항에서 만난 한일경륜 관계자들



■ 일본선수단 입국



■ 선수등록증 수여



■ 양국선수단 패넌트 교환

# 제4회 한일경륜전

THE 4TH BICYCLE RACING CHAMPIONSHIP KOREA JAPAN



■ 출발선상에 선 양국선수들



■ 합동기자회견



■ 일본선수단 신체검사



■ 출주대기실 선수들 모습



■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화이팅

# 벚꽃, 바람에 스러지다

글·김종훈 / 사진·김규태

봄은 소리 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일깨우며 심 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다 어느새 활짝 꽃 봉우리를 피우며 봄소식을 전한다. 일상에 쫓기다 보면 가끔 잊고 지낼 때도 있지만 매스컴은 해마다 어김없이 봄소식을 전한다. 피부를 통해 매화와 벚꽃, 유채꽃이 피었다고 느낄 때 쫄. 요즘 같이 살아가 각박할 때도 어김없이 또 봄은 그렇게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는 벚꽃이 지천으로 늘려있다. 시가지 어디를 가던 활짝 핀 벚꽃을 즐길 수 있고, 시가지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장복산 일대는 벚꽃 가로수가 동에서 서로 띠를 두르고 피어났다. 꽃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덩달아 바빠진다. 시가지를 흐르는 여좌천 일대는 벚꽃을 즐기려는 인파와 한 때 특수를 누리는 노점상들로 아예 발 디딜 틈이 없다. 벚꽃 못지 않게 사람구경도 재미있단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지 궁금하지만.

여좌천을 한 바퀴 돌았다면 이번에는 경화역으로 발길을 돌려볼만 하다. 지금은 기차가 운행하지 않는 역이지만, 한 때 이곳은 쏟아지는 꽃비 속을 뚫고 들어오는 기차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곳이다. 그런 사람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이번 군향제 기간에는 아예 기차를 끌어다 정차해 놓았다. 옛 추억을 더듬으며 한 컷의 사진이라도 남겨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 누비자 이용해 여유있는 봄꽃 감상을

한 줄기 바람이 불면 꽃잎은 스러진다. 스러진 꽃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발길에 무참히 짓밟히지만, 내년의 또 다른 봄을 기약하면서 꽃잎은 그렇게 우리 곁에서 사라진다. 바람에 꽃잎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환호한다. 내년의 희망을 내다보기 보다는 당장 바람에 휘날리는 꽃잎을 아쉬워한다. 남도의 봄꽃은 그렇게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아련한 추억 속으로 갈무리된다.

시가지는 밀려드는 인파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골목골목 차량 홍수를 이룬다. 올해부터 주말에는 시가지 진입을 금지하지만 여전히 교통흐름은 예전만 못하다. 이럴 때 누비자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봄꽃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누비자는 일일 이용이 가능해 천천히 진해 시가지의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번거로운 주차 문제도 일거에 해결하고 구석구석 볼만한 곳을 찾는 데는 안성맞춤이다. 올해는 이미 늦었지만 내년에는 남도의 봄소식과 함께 누비자 이용방법도 미리 알아두면 좋다.



# 일본 귀족 순례길을 자전거로 달리다

글.사진 | 홍성민

3번째 일본 자전거여행이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자전거도 점검을 마쳤다. 텐트를 챙기고 쌀과 김치 등 먹을거리와 같이 입을 옷도 챙겼다. 각종 충전기까지. 최소한으로 챙겼지만 가져갈 짐이 자전거를 제외하고도 10Kg을 훌쩍 넘겼다.

여행일정은 5박6일로 정했다. 일본 중부 와카야마현(和歌山縣)에 천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구마노고도를 달려보기로 했다. 구마노고도는 10세기경부터 일본 천황과 귀족들이 순례하기 시작한 후 일반 백성들도 이에 동참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코스는 와카야마시를 기점으로 시라하마(白浜町)를 지나 본격적으로 구마노고도에 들어서서, 구마노혼구대사가 있는 혼구(本宮町本宮), 구마노하야타마대사가 있는 신구시(新宮市), 그리고 구마노나치대사가 있는 나치(郡那智勝浦町)를 거쳐 다시 와카야마시까지 되돌아오는 500Km의 결코 짧지 않은 여정이다.

## 5박6일간 500km 짧지 않은 여정 나서

배편으로 자전거를 가져가는 건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비행기를 이용하다보니 분해해서 포장도 해야 하고 15Kg를 초과하면 별도의 요금도 부과된다. 빈 박스 무게만 4Kg이다. 자전거와 이것저것 챙기니 21Kg을 넘겨 스포츠용품 위탁료 10,000원을 포함 46,000원의 추가요금을 지불해야했다. 그리고도 양손엔 짐이 한가득이다. 출입국 심사에서 김치랑 참치캔 때문에 출입국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100g(100ml)을 초과하는 액체류는 기내 반입금지란다. 위탁수하물로 처리하고 나서야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오사카 간사이공항을 통해 와카야마시에 도착한 후 42번 국도를 따라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일본은 자동차의 주행방향이 한국과는 다르게 왼쪽주행이다. 한두번 온게 아니지만 항상 어색하다. 갓길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갓길이 없는 곳도 많았다. 차들도 유난히 많이 다니는 길이다. 터널도 간간이 나온다.

오늘 계획된 여정은 시라하마까지 100Km가 넘는 상당한 거리다. 출발이 늦다보니 마음이 바쁘다. 힘차게 페달을 밟아보지만 무게 때문인지 속도가 나질 않는다. 와카야마시 외곽으로 벗어나니 갓길도 없다. 바로 옆으로 뿡뿡 지나가는 차들이 혹 나를 건드리지나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숨이 넘어가는 긴 고갯길을 오르다 문득 가족이 생각난다. '내가 지금 뭘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과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한다지만 내 나이 지금 45살! 사서 고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 아닌 후회를 수도 없이 하면서 앞만 보고 시라하마로 달렸다.

자전거 여행가 이윤기씨의 일본 중부 구마노고도 탐방기를 접하고 나 또한 시간을 내어 한번쯤 둘러보고 싶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쉽게 시간이 나지 않지만 기회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와 작년 추석 연휴를 이용해 자전거 여행을 떠났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오른 구마노고도 기행기를 연재한다.



## 해가 지고 갈 길은 먼데... 쉬고 싶은 마음 간절해

50Km 정도 달렸을까? 어느새 해가 진다. 갈 길은 먼데 배가 고프다. 길가에 멋진 간판을 걸어놓은 수제 우동집에 들러 우동을 한 그릇 먹었다. 남은 여정을 위해 오늘 예정된 거리를 어느 정도는 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후레쉬를 켜고 달리고 또 달렸다. 저녁 9시경 이나미(印南町)라는 마을을 지나다 경찰서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세웠다. 정말 힘들었다. 자전거를 세우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잘생긴 젊은 경찰에게 호텔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지만 빈방이 있는 호텔이 없었다. 마침 다음 주부터 와카야마 전역에 전국체육대회 겸 축제가 있어서 방 잡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한다. 나는 경찰서 마당을 잠시 빌려달라 간곡히 부탁하고 부탁했지만 안된다는 대답만 되돌아 올 뿐이었다. 30여분을 살랑이하다 다시 자전거에 올라 탔다. 떠나는 나를 향해 용기를 내란다. 난 속으로 불만을 터뜨리며 시라하마로 향한다.

갓길 없는 어둠 속 국도는 만만하게 아니었다. 10시를 넘어서 편의점을 만났다. 편의점 직원에게 텐트를 치고 자도 되냐고 물어보니 흔쾌히 허락해주었다. 시라하마까지는 30Km정도 남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자기로 결정했다. 초스피드로 텐트를 치고 가족과 전화통화를 했다. 내가 원해서 시작했지만 괜히 서럽기도하고 울컥했다. 피곤한 나머지 씻지도 않고 땀이 범벅이 된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뺏어버렸다. 첫날 여행은 8시간에 걸쳐 83km를 달렸다.



### 홍성민은...

경남대 사회학과 출신이지만 자전거에 관심이 많아 사이클 관련 직종으로 전환했다. 현재 창원경륜공단 경륜 심판으로 재직 중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준 가족!

글·황인혁 / 사진·김규태

시골에서 자란 나는 에너지는 넘쳤지만, 특별히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없는 놀기 좋아 하는 평범한 아이였다. 그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자전거타기였다. 자전거를 타고 들녘을 달리면서, 바람을 느끼고 계절을 느끼면서 시골마을에서 그렇게 나의 꿈을 키워갔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도시로 진학하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선생님을 만났다. 어려서부터 승부욕이 강했던 나는 지는 것이 싫어 유난히 운동에 열중하는 편이었다. 나는 그 흔한 중 2병도 사춘기도 겪어보지 못한 채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다.

### 경륜선수 코치 만나 경륜에 대한 꿈 키워

그러던 중 경륜선수였던 코치(1기 조덕행)를 만나게 되면서 경륜선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다. 코치는 나를 경륜선수 처럼 단거리 선수가 아닌 중장거리 종목의 최고의 선수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결국 국가대표선수로 발탁이 되었고,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음식에서 나를 지켜주고 물심양면으로 이끌어준 나의 부모님의 도움도 컸다. 부모님은 먹고살기 바쁜신 와중에도 내가 가는 시합마다 숙소를 잡아가며 며칠을 여관방에도 보냈다. 나에겐 먹고 입는 걸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본인들은 식당에서 밥 먹기 아깝다며 여관방에서 직접 취사를 했다. 부모님은 항상 내 시합이

끝날 때까지 있는 내색을 안했다. 2011년 아내와 결혼을 하고 딸아이가 태어났다. 딸아이를 키우면서 이제야 나도 부모님의 그 때 심정을 어렴풋이나마 알 것도 같다.

### 3년 만에 경륜선수 선발시험에 합격해

그 즈음 경륜선수 선발시험에서 낙방했다. 하지만 크게 좌절하지 않고, 그 이듬해 다시 응시했지만 또 떨어지는 좌절감을 맛보았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숙연해진다. 나의 실망은 견딜 수 있었지만, 가족이 상처받은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괴로웠다. 중장거리 종목을 해왔던 내가 단거리 종목으로 바꿔 훈련하는 것도 힘들었다. 내 몸은 중장거리선수로 기억하는데, 현실은 단거리를 요구하니, 그야말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적응하는데 까지 3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예민해져 있었을 때 내가 믿을 것은 가족뿐이었다. 딸아이가 웃음을 주고, 영원한 팬이라고 자부하는 장모님과 사랑스런 아내가 긍정적인 힘으로 밀어줬다. 덕분에 나는 경륜선수 선발시험에 합격하고 훈련원 생활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가족이란 이름의 두 글자가 사랑과 힘으로 나를 지탱해주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가족들은 앞으로도 나를 더 좋은 선수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는다.





# 낙동강 변 비옥한 토지에 자리 잡은 **창녕 남지**

글 · 김종훈 / 사진 · 김규태

강물에 떠밀려 퇴적된 땅은 비옥했다. 그 기름진 땅에 유채를 심어 매년 낙동강 유채축제를 연다. 이 때쯤이면 봄나들이 삼아 전국에서 유채꽃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밀려든다.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 변에 자리 잡은 창녕 남지는 예부터 농산물이 풍부했다. 물자가 넘쳐나면 인심도 좋게 마련이다. 그래서 남지는 정이 넘치는 마을로 이름났다.

강변 남지 둔치는 광활하다. 그 비옥한 땅에서 예전에는 땅콩이 넘쳐났지만, 지금은 이곳에다 유채밭을 조성했다. 더 넓은 이 둔치는 유채꽃의 대명사로 불리는 제주도를 능가한다. 얼마나 대단위로 꽃밭이 조성됐는지, 꿀을 따기 위해 날아드는 꿀벌의 날개짓 소리가 마치 비행체가 지나가는 것처럼 웅웅거린다.



### 매년 4월이면 낙동강 유채축제 열려

4월의 햇살에 유채밭을 거니는 것은 고역이지만 워낙에 꽃이 좋아 걱정하고 돌아봤다. 마치 한 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무덥지만 눈은 즐거웠다. 관람객을 위해 군데군데 정자를 짓고 소나무를 심었지만 햇살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남지는 일제 때인 1936년 남곡면에서 남지면으로 개칭되었고, 그 후 1963년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남지를 비롯한 창녕사람들을 일컬어 순박다질소문(淳朴多質少文)이라 하여, 사람들이 순박하고 꾸밈이 없어 인심을 잃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런 사람들이 홍수를 피하고 비옥한 개간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제때 피수대(避水臺)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피수대는 홍수 때 마을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방으로, 지금까지 유채축제가 열리는 뚝방길로 흔적을 남기고 있다. 6.25 전쟁 때는 이 뚝방이 낙동강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했다.



### 피수대, 남지철교 등 남지 발전 흔적 남겨

유채밭에서 보면 남지와 함안군을 잇는 철교가 눈에 띈다. 이 철교는 지난 2004년 12월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145호로 지정됐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가설된 이 교량은 한강과 압록강철교와 함께 근대식 트러스 교량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히 아름답고 역학적인 구조물로 평가받는다. 피수대와 남지철교 등은 당시 남지가 얼마나 발전한 지역이었는지를 흔적으로 증명한다.

낙동강 변 비옥한 토지에 자리 잡은 남지. 일견 고즈넉해 보이지만 그 비옥하고 광활한 농지를 기반으로 풍부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오늘도 쉬 없이 돌아간다. 낙동강 물은 어김없이 유유히 흐르지만.



"봄꽃 향기  
맘껏 맡아 보세요"

### - 제2회 한국야생화전시회 300여점 전시

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덕용)이 후원하고 사)한국야생화협회 창원시 의창지부(회장 박희자)가 주최하는 제2회 한국 야생화 전시회가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창원경륜장 음악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창원을 비롯한 전국 야생화 동호회원들이 300여점의 작품을 전시해 사흘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번에 전시된 야생화는 특히 지난 겨울 동호인들이 정성껏 가꿔 봄에 꽃을 피운 작품들로 도심속에서 봄의 정취를 자아냈다.

행사기간에는 학서 박금숙선생의 서예작품 5점이 전시되고, 식전행사로는 난타공연도 펼쳐졌다. 공단은 시민들이 성큼 다가온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봄 꽃 300여점도 나눠줬다.





글/사진 | 박성범(스크린동호회 총무)

수많은 스포츠 중에서 유일하게 심판이 없는 종목이 있다. 바로 골프인데 선수 본인이 심판이라고 한다. 선수는 심판이 없어도 각자의 책임과 양심을 근본으로 수많은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한다. 이렇듯 골프는 매너와 예절을 중요시하는 신사들의 스포츠라고 한다.

예전 1990년대 후반 IMF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새벽잠을 설치며 응원했던 선수가 있다. 지금은 은퇴한 메이저 리그 박찬호선수와 LPGA 박세리선수가 그 들이다. 당시만 해도 두선수의 승전보가 날아올 때면 힘들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커다란 위안거리가 됐다. 특히 1998년 맥도날드 LPGA챔피언십 대회에서 박세리 선수가 헤저드에 빠진 공을 양말을 벗고 들어가 쳐 올려 우승했던 기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박세리선수의 우승은 온 나라를 열광시켰고, 실의에 빠졌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는 동시에 여기저기서 골프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 매월 마지막 주 휴일 23명의 회원들 친목 다져

이런 친숙한 스포츠지만 많은 비용 때문에 쉽게 시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0년 실내에서 실제 야외 필드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당구장처럼 부담없이 즐기는 스크린골프장이 생기면서 골프를 배우게 됐다. 2014년 12명의 직원이 동호회를 결성하였고, 현재는 23명의 직원이 매월 마지막 주 휴일엔 인근 스크린골프장에서 평소 같고 닦은 기술과 실력을 뽐내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골프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클럽을 선택해가면서 힘의 강약을 조절하기 때문에, 허리·어깨·손목 등의 유연성과 근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홀마다 인내하고 집중하고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에 좋은 운동이다.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 이번 가을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드넓은 필드에 나가, 마음껏 실력을 겨루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 누비자 정비, 노사 봉사의 날

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덕용)은 경주가 열리지 않았던 지난 4월 6일 오후 노사 공동으로 누비자 터미널 환경 정비 및 세척작업을 실시했다.

노사 협력 및 화합 차원에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노측에서 세척장비 등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80여명의 임직원들은 사내 각 동호회별로 터미널 구역을 분담해 세척 및 환경정비작업과 함께 고장난 자전거 등을 점검했다.



## 제5기 고객자문평가단 간담회

공단 운영과 경주전반에 관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고객자문평가단 간담회가 지난 4월2일 오후 공단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5기 고객자문평가단으로 선정된 9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위원들은 공단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경륜 건전화교육에도 참가했다.



##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업무 협약

공단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청결한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2월3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진해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양측은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등에도 상호 노력키로 협의했다.



## 해봉 김수진 한국화 초대전

공단 2층 상설갤러리에서 지난 1월 29일부터 해봉 김수진 한국화 초대전이 열렸다.

초대전에는 마산 창동 예술촌 입주작가인 해봉선생이 직접 심혈을 기울인 한국화와 소나무 판화 등 20여점이 전시됐다. 공단 상설갤러리는 객장 2층에 30여평 규모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재정균형집행부문 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심사한 2015년 지방공기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공단이 재정 균형집행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400여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발표한 결과여서, 공단의 재정 집행실태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힌 것으로 평가된다. 공단은 지난 2월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2016년도 예산현황 공시

창원경륜공단 2016년도 예산현황을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년 1월 일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1. 2016년도 예산규모 : 38,130백만원(2015년도 예산 44,850백만원)

2. 수지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예산	2015년예산	증△감	비 고
수 입 예 산	38,130	44,850	△6,720	
◦ 수익적 수입	37,429	36,808	621	
◦ 자본적 수입	701	8,042	△7,341	
지 출 예 산	38,130	44,850	△6,720	
◦ 사 업 예 산	37,429	36,808	621	
- 영업비용	37,043	36,287	756	
- 영업외비용	356	476	△120	
- 법인세 등	20	20	0	
- 예비비	10	25	△15	
◦ 자 본 예 산	701	8,042	△7,341	
- 투자자산	0	0	0	
- 유형자산	305	5,010	△4,705	
-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392	3,000	△2,608	
- 예비비	4	32	△28	

# “세계일류 공기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 미국 AmWest사와 **경륜 콘덴츠 수출 MOU체결** (2015. 5. 20)
- ▶ 지방 최초 **한일경륜전 개최** (2016. 3. 25~27)
-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위** (2015년 평가 제외)
-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균형집행 우수기관** (2015년)



**창원경륜공단**  
CHANGWON CYCLE RACING CORPORATION



경고 : 지나친 구매행위는 자신과 가정에 해가 됩니다.